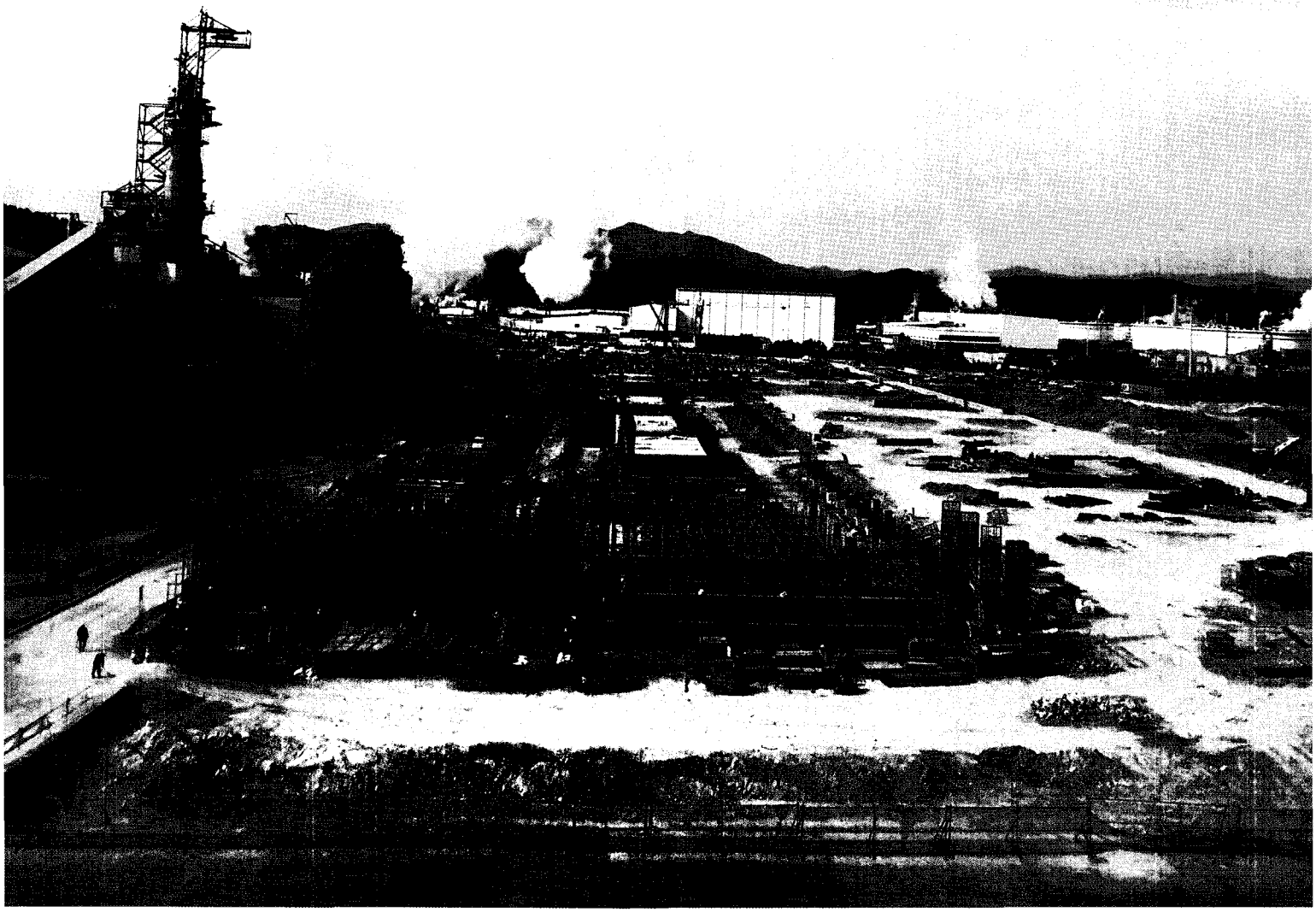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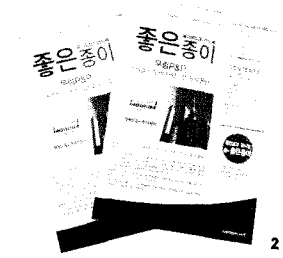
동해펄프, 무림P&P로 새롭게 출범

펄프-제지 일관화로 세계기업으로 도약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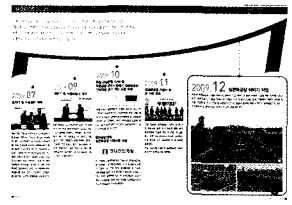
MOORIM
무림P&P

동해펄프(대표 김인중)가 2010년 1월부터 무림P&P의 새 사명으로 공식출범했다. 동해펄프는 '무림P&P'를 사명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무림 브랜드를 공유하게 되어 무림그룹의 명실상부한 일원이 되었으며, 펄프&페이퍼의 약자로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를 논스톱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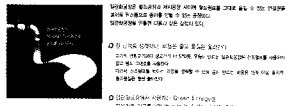
무림P&P는 사명변경과 함께 그룹 CI에 맞춰 명함, 서식, 공장 사인 등의 교체를 마쳤으며 홈페이지도 www.moorimpnp.co.kr로 변경했다. 무림P&P는 사명변경과 함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일관화공장'은 새롭게 도약하는 무림P&P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무림그룹은 자사의 제지 전문 정보지인 '좋은 종이' 및 2010년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광고를 통해 '일관화공장'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고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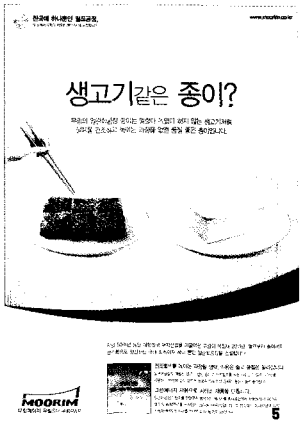
2



일관화공장은 어떤 공장일까?



4



5

1 일관화공장 건설사진(2010.1.14 현재)
2 좋은종이(2010년 1월호)
3 좋은종이(일관화공장 건설진행 주요내용)
4 좋은종이(알기쉬운 일관화공장)
5 기업광고(생고기안)

일관화공장은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에 기공식을 갖고 현재 건물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림은 일관화공장 주요설비 계약부터 시공사 선정, 일관화공장 기공식 진행, 터파기 작업 등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관화공장 건설과정의 주요내용을 사내 정보지를 통해 건설현황을 궁금해 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풀어주었다. 이와 함께 무림그룹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0년 기업광고를 제작하면서 제지업계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고기'를 이미지로 사용해 일관화공장의 장점을 직접화법으로 설명했다. 이에 관계자는 일관화공장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건설되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에게 '일관화공장' 이나 다른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생소한 개념으로 어렵게 느낄 것을 고려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심을 거듭한 끝에 '생고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무림의 관계자는 "냉동과 해동을 반복한 고기보다는 갓 잡아 냉장상태로만 보관된 '생고기'가 더 맛있듯이 펄프 또한 건조와 해리(펄프를 물에 푸는 과정)를 반복한 펄프보다는 맨 처음 생산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펄프가 품질이 좋다. 이 때문에 '막 생산된 펄프=생고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광고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펄프는 최초 생산될 때 수분을 함유한 형태로 마치 죽처럼 만들어지며 국내 제지회사에서 사용하는 펄프는 배송의 편리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기를 빼고 말린 뒤 종이처럼 낱장으로 만들고 켜켜이 쌓아 포장한 각설탕 모양이다. 이를 제지공장에서는 다시 물과 약품 혼합액에 펄프를 넣고 풀어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제지회사 공장에서는 액체펄프 〉 건조펄프 〉액체펄프의 3단계를 거쳐 사용하지만 무림의 일관화공장은 펄프공장에서 생산한 종이죽 상태의 펄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공정이 3계에서 1단계로 줄어들며 중간 작업이 생략됨에 따라 작업비용 절감과 인건비 절감은 물론 펄프의 강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보다 품질이 우수한 종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무림 그룹 관계자는 "이번 광고안인 '생고기' 이미지는 한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기획회의와 열 번이 넘도록 광고시안을 제작한 끝에 탄생한 최종안이었다"며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쉽고 재밌게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펄프 · 제지 일관화공장 건설에 대한 무림의 비전

무림은 현재 한창 건설하고 있는 펄프 · 제지 일관화공장은 펄프공장과 제지공장을 이송관으로 연결해 생산된 펄프(수분상태의 슬러리 펄프)를 그대로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펄프를 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막대한 양의 증기와 펄프 해리시 사용되는 작업비,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현재보다 15% 이상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품질도 훨씬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관화공장은 펄프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종이공장에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화석연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환경친화형 공장이다.

무림그룹은 오는 2011년 6월 일관화공장이 완공되면 무림페이퍼와 무림SP를 포함해 인쇄용지 연간 생산량 120만톤 시대를 열게 된다.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과 각 공장간 혼합 생산체제의 구축으로 품질경쟁력을 강화해 펄프와 제지부문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세계적인 수준의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림은 일관화공장을 건설하면서 사명에 Pulp and Paper의 약어인 'P&P'를 넣는 등 펄프부터 종이까지 논스톱으로 생산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일관화공장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월 중순 현재 펄프 · 제지 일관화공장은 현재 건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1월말까지 공사 구간별로 골조공사와 파일 항타작업을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